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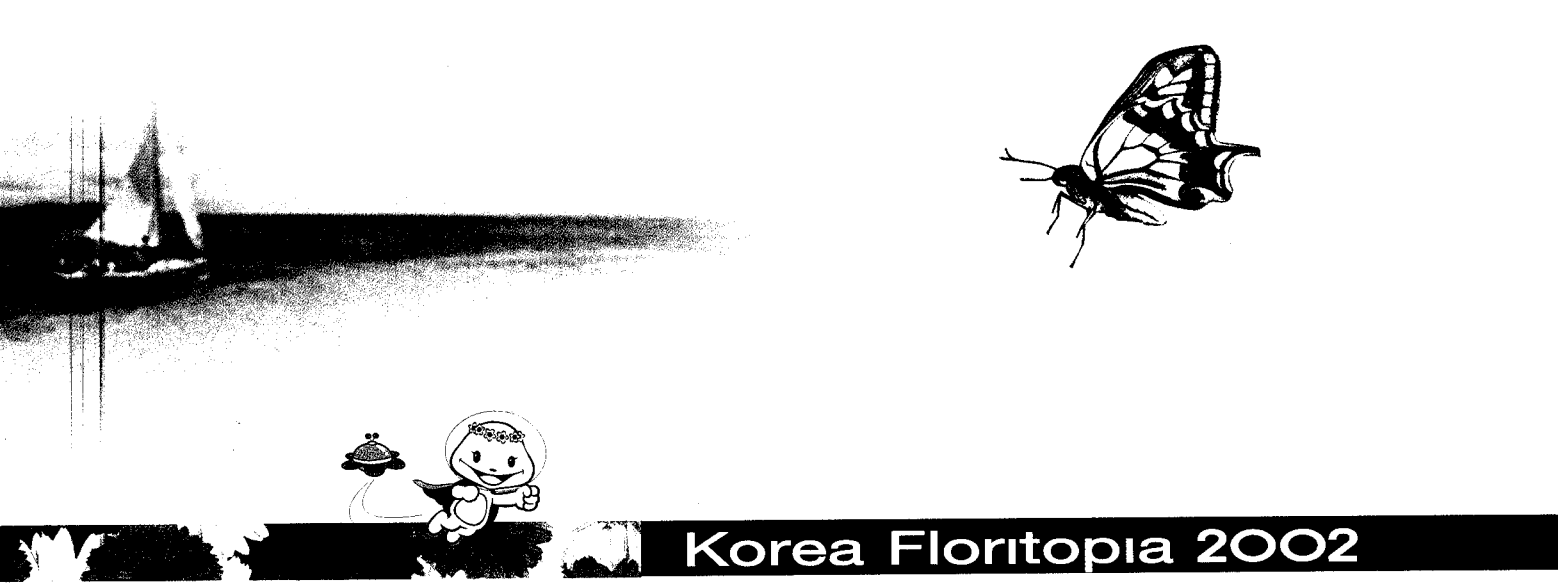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눈짓)가 되고 싶다.

〈김춘수〉



꽃천지..... 가슴설레는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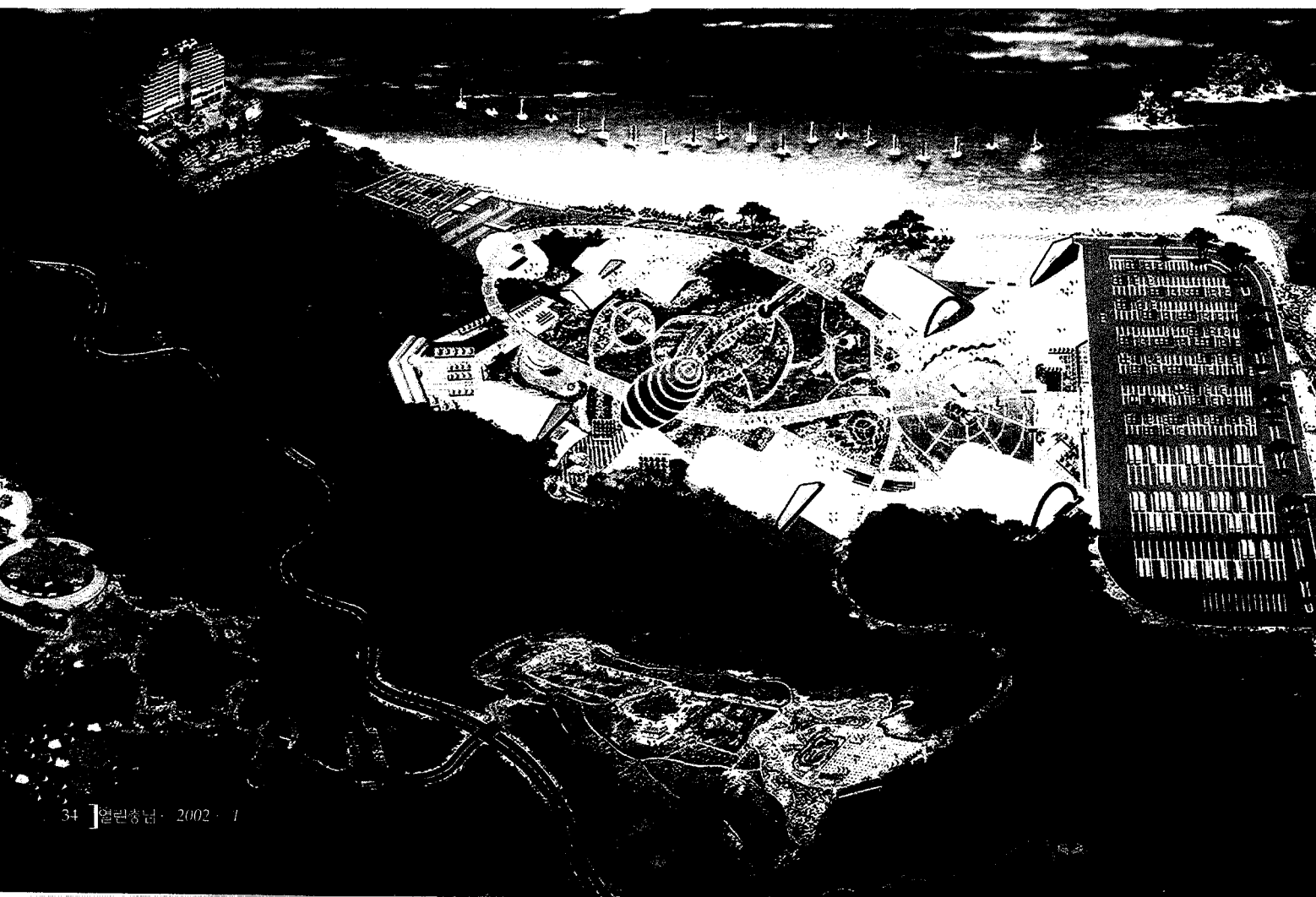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살아 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야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충남도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훼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 꽃 박람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안면도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수많은 해수욕장을 비롯해 각종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며 도내 화훼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 꽃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했다.



Korea Floritopia 2002

안면도는 역사적으로 본래 육지였으나 조선 인조 때 영의정 김유에 의해 절단되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이 된 곳이다. 또 향토적 명칭인 꽃지는 화지(花池)이며 수목원은 잡화골(雜花)로 전해져 내려와 꽃 박람회 개최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특히 1998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국제 공인을 받아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국제 수준의 전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99년 11월에는 박람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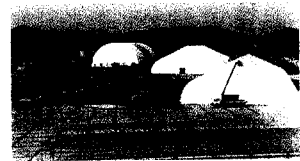


친환경적인 회장 조성

안면도 꽃 박람회는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고 친환경적인 박람회장을 조성함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간 박람회장은 현재 토목공사 96%를 비롯해 총 공정률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 전시장인 꽃지지구는 14만평의 백사장을 주무대로 풍성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회장을 연출하는 8개 실내전시관과 13개 테마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꽃으로 여는 미래」를 테마로 한 꽃과 새 문명관은 생명의 탄생을 느낄 수 있는 「꽃과의 만남 공간」 꽃의 다양성과 활용을 보여 줄 「꽃과 인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27m의 사이버 터널에서 관람객이 직접 걸어가며 오감을 통해 꽃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꽃과의 교감」 미래의 실내조경 문화를 보여 줄 「미래정원」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꽃을 전시하는 「무궁화관」, 「금강초롱관」을 비롯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고유의 자생화 등이 전시될 「자생화관」, 최고의 분재 작품들이 연출될 「분재원」 등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촌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코스모스관」, 꽃과 나비가 조화를 이뤄 옛 고향의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비관,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꽃을 이용한 아름다운 「꽃음식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이 준비된다.

바다물결 정원, 구근원 등 13개의 테마 정원에서는 각양각색의 꽃들로 연출하는 색채의 미술을 체험하고 꽃의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 전시장인 수목원지구는 10만평의 숲속에 만들어지는데 이곳은 조용하고 그윽한 한국적 이미지로 연출하며 야외정원이 주로 들어서게 되는데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지역이다.

이 지구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한국정원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별서정원을 기본 모델로 한국 고유의 정원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백제시대의 연못인 방지를 비롯해 각종 전통 건축양식을 재현했다.

또 대표적 전통문화 유산인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선과 색상을 꽃으로 수 놓듯이 장식하여 형상화할 청자 지수원과 수생식물의 생태습지원, 방향수원 등 13개 식물원이 조성된다.

특히 야외에는 1300여 종 280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비롯해 1000만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꽃을 비롯한 신품종들이 식재돼 그야말로 세계의 꽃과 나무를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참가국과 참가업체 현황

꽃 박람회가 당초 세계 30개국 170여개(국내 90, 해외 30개국, 80)기관 및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31개국 166개(국내 81, 해외 31개국 85)기관 및 단체의 유치에 성공,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관람객들에게 꽃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 참가 업체와 협의, 전시 수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화훼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 수준 높은 전시연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장 운영 및 행사계획

1일 평균 3만명, 총 7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7시까지 관람객들이 회장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 회장(會場)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240여 개소의 편의·식음·판매시설을 설치하고 1000여명의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를 겨냥해 사전행사와 회장내 행사로 구분해 구성했다.

회장 주변 도로공사등 진척현황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홍성·C~AB방조제~박람회장으로 이르는 주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등 해안관광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를 2001년말 완료했다.

사구 보존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돼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해안관광도로는 전 행 서산~부석간, 태안~안면도간 등 보조 진입도로도 갓길포장, 선형개량 등 관람객들이 박람 회장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총 9만평(예비 2만평)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고장차량 처리반, 노점상 단속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상수송을 위해 대천~영목항까지 10~15분 간격으로 여객선을 운항하여 하루 최대 5,000 명의 관람객을 수송하기 위한 접안시설 등의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주요 관람객 유치 포스트 지점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